

벽찬 감격 속 성공 대회 다짐

광주시 2015 U대회 개최 확정

“역대 최고 대회 향한 힘찬 도전”

“최고를 향한 도전, 이제부터 시작이다”

24일 새벽 3시 광주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되자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모여 있던 광주시 사무관 이상 간부급 300여 명은 서로 격려의 악수를 나누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당초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새벽 5시까지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철야 음원제를 개최하려했던 유치위원회와 시는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이를 전면 취소했다.

이에 따라 24일 새벽 2시부터 간부급 공무원만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에서 중계되는 인터넷방송을 시청기로 했으나,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 순간을 지켜보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이들은 23일 밤 10시부터 사무실에 삼삼오오 모여 현장에서 들려올 ‘광주, 코리아’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마침내 광주 개최가 확정되자 최종

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광주가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오늘의 기쁨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온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유치위원회 및 시 직원, 그리고 무엇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간절히 기원해준 광주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유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피 말리는 접전으로 아무도 쉽게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며 “막판까지 쫓아온 에드먼턴을 제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눈물을 흘렸다.

광주의 ‘최고를 향한 도전’이 재수 끝에 ‘성공’하면서, 이제 ‘역대 가장 훌륭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민·공무원 등의 철저한 준비가 과제로 남게 됐다.

시는 대표단이 귀국하는 대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4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FISU) 총회에서 광주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로 확정 발표되자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슴졸이며 대기하고 있던 시 공무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고려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시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 U대회 개최도시 확정 각계 반응

“철저히 준비 광주 국제도시로 키우자”

광주시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되자 광주지역 각계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철저한 준비로 ‘최고의 대회’를 만들어내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 대회가 호남권에서는 열리는 최초의 국제종합경기대회인 만큼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 광주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완벽하게 치뤘다면 광주는 국제적인 명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광주의 발전은 담보된 것이나 다를 없다. 체육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며, 대회에 100km 내 순천, 광양의 체육시설까지 사용

하게 돼 있어 전남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위승두 조선대 체육학과 교수=국제적인 대회를 치르게 되면 스포츠 기반시설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고, 지역 스포츠 인재 양성에 기대할 수 있다. 적지 않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뒤따르게 된다. 학술대회도 함께 열려 체육 관련 교수, 전문가 등이 학문적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정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U대회 유치로 광주의 에너지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를 도시발전으로 승화시켜 내려면 그동안의 비관적 의견들도 수렴해 시민참여형 대회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

인 시민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순희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총무이사=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는 시민 모두의 기쁨이다. 광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 지역의 가치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어렵게 잡은 기회인만큼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국제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외국인 방문객이나 기업 유치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본다. 지역경제의 큰 활력소가 되고 문화중심도시사업과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관련산업인 관광, 서비스산업이 큰 진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중생 자살 ‘체벌’ 논란

유가족 ‘체벌 뒤 ‘자살 도서’ 독후감 숙제’

교사 “죽음에 대한 의미 가르치려 추진”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자살한 가운데 이 학생의 유가족들이 “숨지기 전날 학교에서 심한 체벌을 받았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13)양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언니(1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 언니는 “동생이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독후감을 해야 한다’며 방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아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문고리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자살이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책

을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이를 읽지 않는다면 체벌을 한 뒤 독후감 숙제까지 줬다”며 “이에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자살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심한 체벌은 없었고,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책을 추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읽도록 추천한 책은 16살 소년의 죽음에 얽힌 주변 사람의 아픔을 그린 소설로, 단짝 친구의 죽음을 겪은 한 중학생이 이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경찰은 유족 및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동기 및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3분 해질 19시 36분 달출몰 04시 35분 달정지 19시 37분

눈물같은 빗물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광주	맑음	12/26°C
목포	맑음	12/22°C
여수	맑음	14/21°C
완도	구름 조금	13/22°C
구례	맑음	9/26°C
해남	구름 조금	10/23°C
장흥	구름 조금	10/24°C
고흥	맑음	11/23°C
순천	맑음	13/26°C
영광	구름 조금	11/22°C
진도	구름 조금	10/23°C
전주	구름 조금	13/21°C
남원	맑음	9/25°C
옥산도	구름 조금	13/19°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동	0.5~1.0m	목포 01:46	07:07
연안	북서~북동	0.5~1.5m	13:46	19:0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0.5~1.0m	여수 08:34	02:35
연안	북서~북동	1.0~1.5m	21:17	14:38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날씨						
최저/최고	14/29	14/28	14/29	13/29	14/29	15/28

장성 교회 숙소에서

20대 男 숨진채 발견

22일 오후 5시께 장성군 모 교회 내 숙소에서 김모(24)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같은 교회 내 다른 숙소에서 머물던 오모(3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다리와 엉덩이에는 멍 자국이 있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머물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김씨가 하루 내내 보이지 않아 숙소에 가 보니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성=류충선기자 vjs52@kwangju.co.kr

민주노총 광주 집회

대정부 투쟁 선언

민주노총은 23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권 탄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의 광장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지역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으로 촉발된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나을 앞두고 특수고용직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폐암 투병 탤런트 여운계씨 별세

폐암으로 투병하던 탤런트 여운계씨가 22일 오후 8시7분 별세했다. 향년 69세.

한국 최초의 일일 연속극 ‘눈이 나리는데’에서 시골 다방 마담 역으로 브라운관에 첫 발을 내딛고 고인은 드라마가 연기자들의 생방송 연기로 진행되던 시절부터 40여년간 한국 드라마



마계의 산 증인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남편인 차상훈(72) 전 경기대 교수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25일 오전 9시. /연합뉴스

대모온들침대/가사컬러리
광주신세계백화점 특가판매
광주신세계 지하1층에서 만나십시오!

침대도 영입이 있습니다. 영입 플랫폼-대모온들나라!!
부모님 호도선물로 최고입니다.

문의처: 02-344-1943
Ondolnara 031-348-3359

가정·민간학교·제약·농업
무등산 문빈경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신원부모목양신학모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